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7>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풀 한 포기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행복하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한다. 자신을 해치는 폭력을 모든 생물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식물에 비해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 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소중한다고 부처님은 역설하고 있다. 먹이사슬에 얽혀 있는 동물들은 약육강식의 물리적인 힘의 법칙에 구속되어 있지만 인간은 도덕적인 양심을 지니고 있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여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어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폭력과 살생을 일삼는다면 그런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한 악귀(惡鬼)에 불과하다.

이라크에서 참수당하기 직전 촬영된 고 김선일 씨의 절규를 방송을 통해 들은 사람들은 슬픈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을 한 무장 괴한들이 뒤에서 쫓고 김씨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want to live. 나는 죽고 싶지 않

자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사용하여 발우로 막 내아들인 빈가라를 덮어 감추었다. 막내아들을 잃고 7일간 여기저기 천하를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자 거의 광란에 빠진 귀자모는 남들이 전하는 말에 일체지(一切斷)를 갖추시었다는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방문하여 자신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여쭙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1만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의 아들을 잃고서 그다지도 고뇌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는 한 아이를 두고 또 어떤 이들은 다섯이나 셋을 두기도 한다. 그런데 네가 살해하였으니 그 부모들의 비통은 어떠한가." 그러자 귀자모가 말씀드렸다. "제가 지금 만약 막내아들을 찾았다면 다시는 세상 사람들의 아이를 살해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귀자모에게 발우 밑에 있는 아들을 보게 하였다. 귀자모가 신력을 다하여 아이를 잡아당겼으나 구하지 못하자 다시 부처님께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능히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서 수명이 마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네 아이는 돌아오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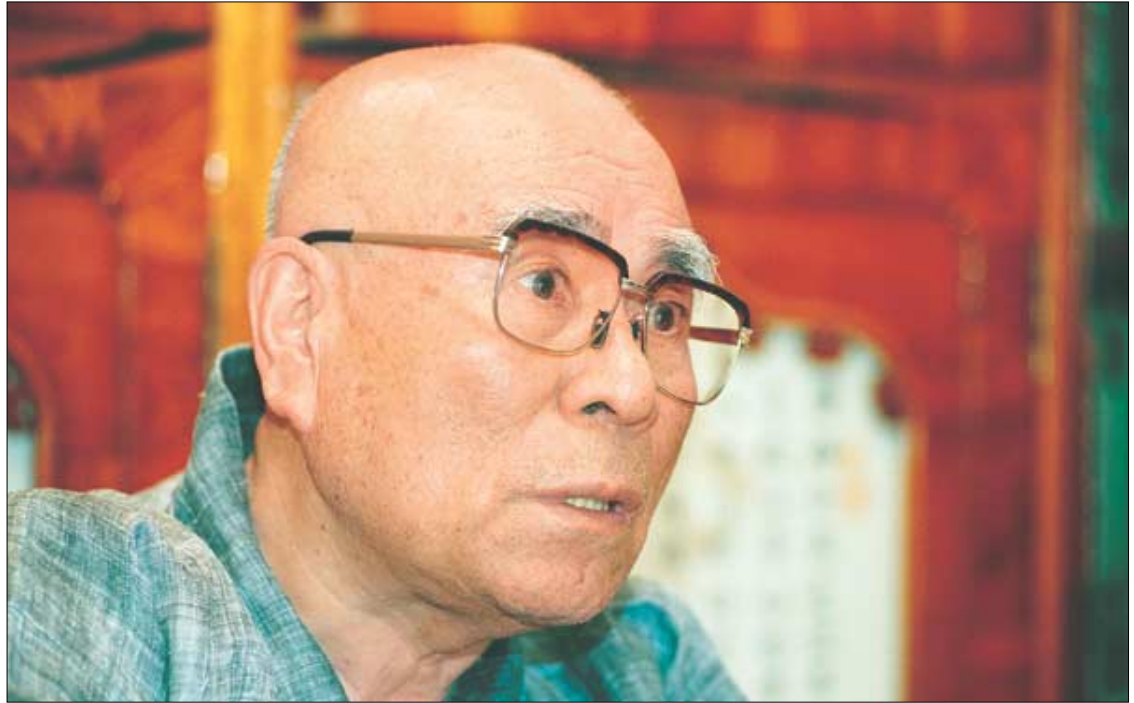
귀자모는 수많은 자식을 두고 있으면서도 단 한 명의 자식이 보이지 않자 격심한 고통에 빠

아들 1만명 둔 악귀, 자식 하나 잃고 비탄 자기가 죽인 아이 부모의 고통 헤아리지 못해

습니다! don't want to die). 당신의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Your life is important and my life is important.) 이 몇 마디 외침에서 우리는 김 씨의 절박한 심정을 통감할 수 있었고 그의 말이 진실임을 공감한다. 당시엔 당신의 생명이 소중한듯이 나에겐 나의 생명이 소중하므로 서로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의 소원대로 그의 생명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국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참하게 참수 당하고 말았다.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중에 그가 피랍된 직후에 촬영된 그의 모습을 방송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납치범들에게 자신이 결코 그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온 몸으로 설득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살생이란 폭력을 피해보려는 김 씨의 애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잡보장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귀자(鬼子)의 어머니는 늙은 귀신의 왕 반사가의 아내로서 1만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역사(力士)의 큰 힘이 있었다. 제일 작은 아들은 이름이 빈가라(頻伽羅)였다. 귀자모는 흥악하고 요사하며 사나워 사람의 아이들을 잡아먹었으므로 사람들은 격정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

졌다. 다른 부모의 자식을 죽이면서도 피해자나 그 부모의 고통은 알지 못했다. 어떤 원한을 품고 그 원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이를 죽이는 귀자모의 모습이 선량한 시민을 살해하는 이라크 테러리스트의 모습과 일치한다. 생명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 돈이나 명예를 논기나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신의 이익이나 신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해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무고한 젊은이를 죽인 테러리스트에 온 국민이, 심지어 아랍인조차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러리스트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지는 간단히 판정하기 어렵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세계경제, 종교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인도 아닌 외국 시민을 인질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귀자모는 다시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살생은 더 많은 폭력과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테러리스트는 명심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께서 5계 중 불살생계를 제일 먼저 두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그대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니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라"는 덕해 스님.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으로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와 보문 중·고등학교를 성공리에 경영중인 스님은 수도권에 여자 중·고등학교 설립을 발원하고 있다.

“인재·복지 불사가 곧



덕해 스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크스님, 구름장은 고쳐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러저럭 살고 있습니다."

안양 보장사 주지 덕해 스님(보문학원 이사장)을 친견한 것은 3년전. 보장사창년회 활동을 취재하려 갔다가 우연히 공양간에서 스님을 뵈는 적이 있었다. 마침 겨울이었는데도 스님은 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 냉방에서 지낸다는 것이었다. 신도회 간부로부터 일흔이 넘은 노스님이 냉방에서 지내며 정재(淨財)를 아끼고 아끼면서 보문 중·고등학교와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다. 6월 28일 오후, 스님은 아직도 당시 처소의 보일러를 고치지 않은 채 인제불사에만 전념하고 계셨다. 일상사 그대로그가 수행이 지도인 스님으로부터 일과 수행이 하나되는 도리와 참불사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찰 정재 금쪽같이 아끼며 한겨울 냉방서 생활

“만물 움직이는 힘 일상에 있는데 어디서 뭘 찾나”

나는 신도들에게 주로 <금강경>과 <법화경>을 강의하곤 합니다. 요즘엔 <법화경>을 강의 중인데, 늘 <법화경>의 본래성불(本來成佛)과 공덕(功德) 사상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법의 핵심을 설파한 <법화경>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 '부처 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출가한 이래 50여년 동안 출공 교육과 복지, 포교사업을 수행하며 여기고 매진해왔습니다. 나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초발심 시절의 행자 때와 마찬가지로 목탁을 치며 예불을 올리고, 타종도 직접 합니다. 일상 그대로그가 진법

(眞法)이자 진불(眞佛)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찾아내 일으키면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일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리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가 부처 되고 참선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앉아 있어도 서 있는 생각을 하면 서 있는 것이요, 서 있어도 앉아있는 생각을 하면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도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 수행이 아니요, 사소한 일을 해도 번뇌와 망상이 없이 고요하면 그것이 곧 수행인 것입니다.

한 작은 사찰이 어떻게 불교전문대학원과 중·고등학교, 노인복지센터 등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원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정재를 활저히 관리하면서 살다 보니 모든 일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습니다. 절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려울 때나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세계불교법왕종)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구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무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사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 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원이 복원 불사 중 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공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

편안할 때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삼매'에 들 것이고, 일하는 사람은 '일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일과 수행이 틀이 아니기에 매사에 정성껏 일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이치입니다. 어떠한 영험도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 똑같은 신심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데에 모든 불사성취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도들에게도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한 생각에 500번의 생명(性滅)이 일어난다고 했듯이 번뇌망상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킬 때가 공부할 때'입니다. 신도들이 절에 가려는 마음을 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에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까지가 정진입니다. 그렇게 자주 절에 오다보면 절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상관없이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이 항상 마음 공부를 하거나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성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광명과 평화의 세계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깨침의 진리가 우주에 두루해야 합니다. 이 맑고 밝은 빛은 인간 내면의 불성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표는 불성을 깨쳐, 무아의 인격으로,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재양성을 가장 중요한 전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승이신 관음

한생각 일어날 때가 공부할 때 계을 지키고 인과법 잊지말라

수행이지”

큰스님의 덕화 때문이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시어 내전, 외전을 회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행력 또한 대단하셨습니다. 속가속집간 인연도 깊었으나 제대로 부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관음 큰스님의 문하로 들어갔습니다. 은사스님은 유가 집안에서 태어나 선비의 기질을 타고난 분이셨습니다. 종단의 원로이면서도 일체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신의 편안함이나 명예 보다는 오로지 부처님 법 배운 은혜를 회향하시겠다는 원력을 갖고 계셨지요. 그 어린 학덕과 생활을 보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사스님은 늘 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게 인연으로 생겼다 멸하는 것이니 신심으로 선업을 쌓으라고 당부하셨지요.



덕해 스님은 "일생 속에서 매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당부한다.

점선과 기도, 독경을 할 때도 늘 신심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인과의 도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삼보정재를 허투루 쓰는 것을 절대 용납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고, 어떤 원(願)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오랜 세월 모시고 살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수행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동안 청년회, 화성회를 운영해 보니 잘 안되더군요. 결국 사찰에서 힘겹게 청소년 포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권 중립학교를 통한 포교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문 중·고등학교만 해도 1년에 1천여명이 수계를 받아 불자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신순화가 되고 인성교육이 되다보니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단이나 스님들은 우선적으로 인재발사에 힘을 기울여 불교의 백년대계를 도모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곳은일에 임자 있나... '일꾼 부처'로 통해

덕해 스님은 일흔을 넘긴 세수에도 도량 청소, 새벽 종성 등 행자들이 할만한 곳을 일을 몸소 행하는 큰스님.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의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와 보문 중·고등학교, 안양노인복지센터, 보장사 영각당 등 여러 기관을 책임진 바쁜 몸이지만 그 흔한 자가용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덕해(德海) 스님은 잡다하고 곳은 일이라도 아래 사람을 시키는 법이 없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까닭에 신도들로부터 '일꾼 부처'라고 불리운다. 개신교인인 안양시장이 안

양노인복지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며 적극 협조할 정도로 지역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이 선정한 '2004년 한국을 빛낸 얼굴'에 선정될 정도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큰 성과를 일궈 온 덕해 스님은 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또 하나의 원력을 세우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김병희 상무이사는 "청렴한 생활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스님의 보살행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며 "특히 스님의 인재발사와 포교사업은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932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덕해 스님은 지난 3월 입적한 직지사 조실 관음 스님의 망상 좌자라 친조카이기도 하다. 1952년 경북 예천 운문사에서 관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9년 김천 직지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통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안양에 보장사를 창건하고 1982년에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을 설립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불교안양원 이사장, 1990년에 인수한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2000년 수탁한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복지발사에 진력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해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해닷컴(www.tanhae.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Set-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할인)

단! “500분”제만! 기획을 드립니다

<<탄해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해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해 대중사에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처: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 마하물: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 주소: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33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빌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특선 대만항공전세기 중국 오대산 성지 순례 4일 599,000원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응현목탑, 현공사등 성지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발일: 9월 17일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루무치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출발일: 8월 10일
 ●일 정: 파키스탄 라호르-택실라-페사위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장수 마을)-키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 티벳, 내팔 일주 12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출발일: 8월 3일, 9월 3일
 ●일 정: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트만두